

1992년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증언과 분신자살, 원폭의 사회화

- 김원일의 「그곳에 이르는 먼 길」(1992.6) -

이 행 선*

1. 들어가며: 전후 배상과 핵문제
2. 피폭가족의 삶과 사회적 소외, 기다림
3. 분신자살과 핵의 위험성, 원폭의 사회화
 - 1) 원폭2세의 요청서와 분신자살
 - 2) 핵의 위험성 - 원전 사고, 핵무기
4. 나가며: 원폭지옥, 원폭유전

1. 들어가며: 전후 배상과 핵문제

이 글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다룬 김원일의 중편소설 「그곳에 이르는 먼 길」(1992.6)을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다룬 소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2017년 5월 김옥숙의 장편소설 『홍터의 꽃』이 출간된 적이 있다. 일본 동일본대지진(2011.3.11)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에서도 방사능오염과 핵발전소의 안전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었고 경주지진(2016.9.12)은 한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불안이 세월호 사건(2014.4.16) 같은 재난과 결부되면서 한국인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에 더 민감해졌고 여러 분야에서 재난사건의 진상규명과 배상을

*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추구하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분출하였다. 이때 아픈 원폭 피해자(1세)의 자식이지만 다행히 ‘건강한 원폭2세’이자 소설가인 김옥숙도 원폭문학 『홍터의 꽃』을 통해 원폭 문제를 제기했다. 소설이 나온 2017년 5월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2016.5.29 제정)이 시행된 역사적인 달이기도 했다. 피해 당사자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법’이 시행된 해에 나온 소설은 무엇을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했을까.¹⁾ 이런 맥락에서 김옥숙의 작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에 비추어 김원일의 『그곳에 이르는 먼 길』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 작품은 1992년 『작가세계』 6월호에 발표되었고 같은 달 소설모음집 『그곳에 이르는 먼 길』에 포함되어 출간되었다.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1992년 초 한겨울이다. 피폭 운동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1987년 11월 30일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주한일본대사관에 재한 피폭자의 손해보상으로 미화 23억 달러를 요구했다.²⁾ 마침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일본과 전후처리가 외교현안이 되었다. 1990년 5월 노태우 대통령이 방일했을 때, 가이후 도시키 수상은 재한국 원폭 피해자에 대해 인도적 의료지원 명목으로 총액 40억 엔의 지원을 약속했다. 그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에 설치된 재한원폭피해자복지기금에 1991년 11월 1일 재한피폭자 지원을 위한 거출금 17억 엔(1차분), 1993년 23억 엔(2차분)이 지급되었다. 한국 정부는 1993년 6월 대한적십자사 산하에 원폭복지사업소를 신설하고 피폭자에게 병원진료비, 진료보조비, 사망 장제비를 지원하고, 합천에 원폭피해자복지회관을 설립하여 운영했다.³⁾ 이러한 맥락에서 김원일의 소설은 1차 거출금이 대한적십자사에 입금(1991.11)되고, 아직 2차분이 입금(1993.2)되기 이전의 작품이다.

그동안 한국 반핵운동의 역사는 핵발전소와 핵폐기장 반대로 국한되어 왔고 원폭 피해자의 문제는 일본의 민단, 핵금회의 등 시민단체와 한국인 피폭자의 연대의 맥락에서 별도로 기록되어 왔다. ‘한국인 원폭피해자 운동의 역사’는 국

1) 이행선, 2018 『한국인 원폭 피해자와 증언의 서사, 원폭문학: 김옥숙, 『홍터의 꽃』(2017), 『기억과 전망』 39, 148-190면.

2) 『被爆者 日に 23億달러 보상 요구』, 『동아일보』, 1987.12.01, 11면.

3) 정재정, 2014 『주제와 쟁점으로 읽는 20세기 한일관계사』, 역사문제연구소, 325-326면.

내에 다양한 협조를 구해온 ‘협회활동의 역사’와, 일본의 시민단체나 정치인들의 지원과 연대 속에서 이어져 온 ‘재판운동의 역사’라 할 수 있다.⁴⁾ 이러한 역사에서 일본의 40억 엔 지원은 공식 사죄를 동반하지 않았고 배상 명목이 아니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피폭한국인의 여건을 개선하는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김원일은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1차분이 입금된 이후 시점을 배경으로 어떠한 원폭 문제를 제기하고자 했던 것일까.

“한국과 일본, 양국으로부터 버림받은 채 살아가는 원폭피해자들은 1세와 2세를 합쳐 4만여 명에 달합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따라 고통 받는 사람들이 다시금 무관심과 냉담 속에서 허물어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시도인 이 작품의 作意에 대해 “핵 문제가 민족전체의 생존과 결부돼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원폭의 끔찍함을 담고 싶었다.”고 밝혔다.

“다양한 소재를 통해 자기의 작품세계를 넓혀가는 것은 작가의 당연한 의무겠지요. 또한 이념의 직접적 대립을 다루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느낌이 도 합니다.”

한때 분단문제를 계속 작품화해도 가슴에 미진한 것이 남아 다시 쓸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던 김 씨는 월간 『문학사상』 6월호에 현실사회주의국가의 붕괴의 이념의 와해에 따른 분단문학의 변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분단문학이 역사 속에 사라진 남로당, 빨치산 문제에 지나치게 매달림으로써 현재 진행형으로서의 분단현실을 놓쳐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분단현실을 담기 위해서는 그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북한의 실체를 문학 속에 끌어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분단이 계속되는 한 그 원인을 만들어낸 해방공간과 전쟁을 무시할 순 없겠지요. 그러나 급격한 이념소멸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직접적 이념쟁투가 아닌 살림, 가난, 집단간의 갈등, 민족 등 원초적 문제에 접근할 때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새 작품은 분단의 현재적 모습을 그리기 위한 관심의 산물이라는 설명이다.⁵⁾

가장 최근에 발표한 『그곳에 이르는 먼 길』은 한국인 원폭피폭자문제를 2년 동안의 취재 끝에 완성한 것으로, 폭넓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 소설은 피폭자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고발하는 측면도 있지만, 역사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인간집단

4) 정근식 편·진주 채록, 2015 『고통의 역사: 원폭의 기억과 증언』, 선인, 31면.

5) 『인터뷰 “분단文學, 『이념』은 이제 한계 『피폭자의 버려진 삶』 더 절실”』, 『경향신문』, 1992.05.18, 19면.

의 소외를 철저히 제거, 객관적 시점으로 형상화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더욱 두드러진다. 작가는 현재 쟁점화 되고 있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 보상 문제와 한반도의 핵문제의 한 복판에 한국인피폭자들의 고통스런 삶을 집어넣어, 피폭자문제가 현대사의 총체적 구조 속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절망의 끝에 도달한 피폭자 2세가 피폭후유증으로 평생을 불구로 살다가 죽어가는 부친을 껴안고 광화문네거리에서 분신자살하는 이 소설의 결말은 히로시마의 불바다보다 오늘의 현실이 더 끔찍한 불바다라는 전언을 강렬하게 제시한다.⁶⁾

그전까지 분단문학을 추구해온 김원일은 민주화와 소련 붕괴 이후 “이념의 직접 대립을 다루는 한계”를 실감하던 중, 새롭게 북핵 문제가 부상하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 “핵 문제가 민족전체의 생존과 결부돼 논의되고 있는” 현실을 체감한 김원일은 “그동안 분단문학이 역사 속에 사라진 남로당, 빨치산 문제에 지나치게 매달림으로써 현재 진행형으로서의 분단현실을 놓쳐왔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분단의 현재적 모습”을 원폭 피해자에서 발견하였다. 2년여의 취재를 통해 산출된 『그곳에 이르는 먼 길』은 “작가는 현재 쟁점화 되고 있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 보상 문제와 한반도의 핵문제의 한복판에 한국인 피폭자들의 고통스런 삶을 집어넣어, 피폭자문제가 현대사의 총체적 구조 속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3년을 취재하고 쓴 김옥숙의 『홍터의 꽃』은 ‘특별법’(2017) 시행만큼이나 한국 사회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미디어가 발달하고 기록 과잉시대라고 하지만, 원폭의 참상을 알리는 원폭 피해자의 호소와 경험이 공적 언어화 되어 미디어의 공적 이슈로 전환하는 것은 굉장히 지난한 일이다. 27년 전, 1990년 5월 24일 일본 정부의 40억 엔 지원이 결정되면서 한국사회에서 잠시지만 원폭피해자 문제가 피폭운동 사상 가장 많이 미디어에 노출되었다.

본고는 이 국면에서 김원일이 원폭문제의 사회화와 공적기억화를 위해 어떠한 전략과 내용으로 『그곳에 이르는 먼 길』⁷⁾을 구성했는지 구명(究明)하고자 했다.

6) 『역사가 버린 被爆者 고통 부각』, 『조선일보』, 1992.07.08, 13면.

7) 『그곳에 이르는 먼 길』은 핵심인물인 정순옥이 아버지 동철의 병원 진료를 위해 여동생 수임을 데리고 서울에 상경하여 묘산의 집을 찾으려 시작된다. 총4일 체류 계획의 시간적 구성하에서 소설은 크게 5장으로 나뉘어 있다. 1장은 서울 첫날로 밤에 터미널에 도착하여 강남의 묘산 집에 찾아가 잠을 자는 것이고 2장은 이튿날 한국원폭피해자협회를 찾

작가는 ‘등장인물의 가족생애사’와 ‘요청서와 분신자살, 핵의 위험성 전달’을 통해 피폭자의 삶의 실상과 논쟁지점을 드러내는 전략을 취했다. 그래서 2장은 전자, 3장은 후자의 문제를 다룬다.

2. 피폭가족의 삶과 사회적 소외, 기다림

김원일은 『그곳에 이르는 먼 길』에서 두 가족이 만나는 서사 전략을 취했다. 작품은 합천에 살고 있는 피폭자 정동철 가족이 고향에서 가장 성공했다는 묘산 화백을 찾아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집의 초인종을 누르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를 통해 ‘두 가정의 소개와 대비’가 서사의 한 축이 되고, 정동철 아들인 순욱이 묘산에게 순욱의 외할아버지 및 외할머니의 생애에 대해 물어보면서 정동철 가족 3대의 생애사가 완성되는 서사가 또 하나의 축이다. 이렇게 구축된 피폭자 집안과 비피폭자 집안의 대비 속에 식민지 시대와 1945년 이후 1992년에 이르는 한국인 피폭자 가족의 생애사가 가시화 된다.

이러한 설정은 작가가 가족구술사라는 생애사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에서 본격적인 증언집의 시작을 알린 『고통의 역사 - 원폭의 기억과 증언』(2005, 증언:2002.11-2003.3)은 증언자의 피폭 경험을 원폭피해자들의 생애 전체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⁸⁾ 『내 몸에 새겨진 8월 - 히로시

아가 진료확인증을 받고 적십자병원에 가서 확인증을 보여주고 피폭자의 퇴권을 발급받는다. 3장은 그날 밤 묘산의 집에서 순욱이 묘산에게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얘기를 물어보는 내용이다. 4장은 3일째 경희의료원에 가서 병원 진료를 하는 내용이다. 5장은 진료 후 오후 늦게 순욱이 일본대사관에 가서 대사를 만나 요청서를 전달하려고 하지만 경찰에 체지당하고 중학교출소에 연행되었다가 풀려나 묘산의 막내딸 정혜의 운동권친구 2명과 술자리를 하고 묘산 집에 귀가한다. 그 사이 파출소에 연행되었을 때 정혜가 동철과 수입을 데리고 먼저 집에 돌아갔는데 동철의 병세가 급격히 나빠져 묘산이 입원을 시켰다. 순욱이 귀가 후 묘산, 이 여사와 심하게 다투고 집을 나간다. 그 다음날 4일째 퇴원한 아버지를 데리고 광화문으로 이동한 순욱이 도로 중간에 뛰어들어 미리 준비한 시너를 끼었고 동반 분신자살을 하며 소설은 끝이 난다.

8) 정근식 편·진주 채록, 2005 앞의 책, 34면.

마, 나가사키 강제동원 피해자의 원폭체험』(2008, 증언:2004.11-2008)은 피폭구술자 20명이 왜 그 장소에 있어야 했는지 역사적 의미를 묻는다.⁹⁾ 『한국원폭피해자 65년사』(2011, 증언:2011.4-11)는 일본에서 나온 원폭체험이야기는 대체로 ‘피폭체험’에 대한 이야기로서 그 이전이나 그 이후의 이야기에는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피폭자가 도일하게 된 계기나 생활 등에 대한 내용은 미비한 수준¹⁰⁾이라고 지적했다. 즉 이들 구술 기획의도의 성공여부와 별개로 대담자의 문제의식을 종합하여 확장해보면 ‘피폭 순간’만을 다룬 문학작품이나 증언을 극복하고 ‘도일 이전, 이후, 피폭 당시, 귀국, 귀국 이후의 삶’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희생자를 온전히 대변하고 이해하며 공적 기억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김원일이 한국에 원폭의 역사를 알리는 수단으로서 가족구술자의 생애사 서사전략을 택한 것은 나름 합리적이다. 일반적으로 개별 구술은 경험과 시각에 차이가 있고 증언의 내용과 구성 및 깊이가 다르며 그 양은 현실적으로 적고 파편적이다. 가족구술사를 차용한 소설의 형식은 개별 구술의 단점을 극복하고 독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런데 정순옥의 아버지는 피폭을 당하면서 그 이전의 기억을 잃어버린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원폭의 위험성을 환기하는 동시에 소설 속에서 생애사를 완성할 또 다른 핵심적 인물의 등장을 의미한다. 3대를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3대의 중간인 아버지의 위치보다는 아버지의 아들이자 할아버지의 손자인 순옥이 더 적합하다. 여기에 작가는 기억을 못하는 순옥의 친아버지 대신 ‘이웃 아버지’격인 묘산 화백과 순옥의 대화를 통해 외조부의 생애를 완성시켜 도일 이전 시대의 상황을 가시화했다. 이러한 구조 속에 원폭3대의 피폭가족생애사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 방법의 채택 배경에는 소설이 쓰인 시점의 영향도 감안이 되어 있다. 『그 곳에 이르는 먼 길』은 원폭 66년여가 지나 쓰였다.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다양한 피해자상이 존재한다. 세대 차이와 원폭후유증의 유무에 따라 상이한 피해상

9)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8 『내 몸에 새겨진 8월: 히로시마, 나가사키 강제동원 피해자의 원폭체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6면.

10)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편찬위원회 편, 2011 『한국원폭피해자 65년사』, 한국원폭피해자협회, 475-476면.

과 삶이 있다. 이를 종합하고 증편으로 서사화 하여 피해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작가는 원폭 1세 외할아버지와 아버지 정동철의 삶을 보여주면서 '원폭 2세인 정순욱'을 사실상의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다시 정리하면 정순욱은 아픈 아버지 정동철과 여동생 정수임의 삶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고향 합천에서 자신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어릴 적 이웃하고 살았던 묘산 화백에게 외조부 /모의 생애를 질문하여 집안의 외할아버지부터 자신 세대까지 피폭가족사를 완성하는 핵심적 인물이다.

【정순욱 가족의 세대 구성】

- 1대(원폭1세) : 홍 서방(외할아버지)-미에 상(일본여성, 피폭) : 두 분 일본밀항, 소식 끊김
 2대(원폭1세) : 게이꼬(딸, 혼혈, 피폭), 홍일동(아들, 피폭, 어릴 때 한국전쟁 휴전 무렵 사망)
 ☞ 게이꼬 결혼사 - 초혼 실패, 3년만에 쫓겨남(아이 못 낳고, 아퍼서 일 못함)
 - 정동철(피폭, 현 58세)과 再婚(결혼생활 2년), 딸 수임 낳고 사망
 3대(원폭2세) : 정동철의 아들 정순욱(현 32세), 딸 정수임(현 30세)
 ☞ 정순욱 원폭증 : 신경통, 고질적 두통, 근육무력증, 심한 약시 등
 ☞ 정수임 원폭증 : 정신박약, 난청, 좌골 신경통, 빈혈 등

『그곳에 이르는 먼 길』은 정순욱(32세)이 아픈 아버지 동철(58세)의 병원 진찰을 위해 애초에 4일 계획으로 서울에 올라와 묘산 화백 집에서 3일 머물며 벌어지는 일을 다루는 작품이다. 정순욱은 올라온 김에 5개 기관(일본대사관, 법무부장관, 외무부장관, 보사부장관, 미국대사관)에 피폭자의 현실을 알리고 지원을 촉구하는 요망서(이하, 요청서로 칭함)를 5개 준비해왔다. 그 중 소설에서는 병원 진료 후 일본대사관에 찾아가는 대목만 나온다. 즉 그가 일본대사관에 찾아가 피폭자의 염원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두 가족의 대면'은, 생애사의 대비와 완성을 통해 피폭자가 살아온 지난한 삶과 고통을 독자에게 먼저 알리는 기능을 한다. 피해자의 요청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겪은 삶과 한을 알아야한다. 피폭자를 지원하는 사회 제도의 구축은 피해자의 현실에 대한 지식과 사회적 기억화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확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작가는 정순욱 피폭자 가족의 열악한 처지를 독자에게 더 부각시키기 위해 같은 합천군 출신으로 가장 성공한 묘산 화백(본명 : 오성규, 호 : 묘산)의 가족

을 설정한다. 동일 고향의 ‘피폭자 집안 대 원폭과 관련 없는 집안’의 흥망성쇠가 서사의 기본 전제다. 묘산은 1945년 중1때 아버지가 호열자(콜레라)로 사망하고 1년 후 어머니가 가출해서 큰댁에서 살다가 중학교 졸업 후 대구에 가서 그림을 배워 22세 때 국전 동양화 특선에 뽑히고 이듬해 서울에 올라가 특전 3회, 국무총리상까지 받은 인물이다. 그는 대구 서문시장 부유한 포목상의 무남독녀 아내를 만나 25세에 결혼해 동양화가로서 부와 명예를 다 이뤘다. 거실에 관할 파출소와 연결되는 자동경보기를 단 강남의 호화 고급주택에 살며 골동품과 고화 수집이 취미인 그는, 운전기사와 가정부를 두고 영국산 애완견 요크셔테리어에게 스테이크와 외제 사료를 먹인다. 아내 ‘이 여사’는 부유층 서예모임 부회장이고 기업가에게 남편의 그림 판매를 주선하기도 한다. 큰 아들은 약사와 결혼하고 미국에서 경영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 둘째딸은 프랑스에서 산업디자인 유학을 하고 있다. 막내는 서울에서 역사학을 전공하는 대학2년 오정혜다. 즉 유학생 자녀를 제외하고 ‘묘산, 이 여사, 오정혜’ 세 사람이 강남집에서 ‘정순옥, 아버지 정동칠, 동생 정수입’을 대면하는 국면이다.

더부룩한 머리카락에 눈가루를 잔뜩 쓴 짧은이의 안경 쓴 모습에 묘산은 순간적으로 흠칫 놀랐다. 광대뼈가 볼거진 훔쭉한 얼굴에 도수 높은 안경알 안쪽의 방울눈이 희번덕거렸는데, 풍기가 있는 듯 왼쪽 눈꺼풀이 썰룩대었다. 무전취식자, 아니면 수배자로 분류해야 마땅한 음산한 물골이었다. …(중략)… 순옥이 정동칠 씨와 게이 꼬 누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라면 원폭 피해자 이세가 되는 셈이었다. 부모가 모두 피폭자이니 그가 후유증을 앓고 있거나 않는지, 묘산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틈입자의 외양이 예상 밖이라 묘산은 무언가 당하지 않았냐는 느낌이 들었다. 찾아오라고 일렀으니 맞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돈을 얼마 정도 쥐어주더라도 돌려보낼 궁리를 짜내야 할 형편이었다. …(중략)… 그들은 한마디로 거지 가족으로 불려도 별 허물이 되지 않을 만큼 궁상을 떨고 있어, 묘산은 낭패한 느낌에 절로 한숨이 나왔다.¹¹⁾

대면 당시 순옥(32세)은 무릎과 허리에 신경통이 있고 고질적인 고통에 무기력증 등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잠시 쉬고 있다. 여동생 수입(30세)은 귀가 어

11) 김원일, 1992 『그곳에 이르는 먼 길』, 『그곳에 이르는 먼 길』, 현대소설사, 197-199면.

뚝고 말도 어눌하며 정신도 박약하고 몸이 아프다. 아버지(58세) 동철은 실금증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 이 가족은 농협에 빚이 있고 영세민 생계비를 받아 생활하는 극빈층이다. 이들은 묘산(53세 추정)의 집이 너무 화려해서 충격을 받는다. 이 집의 부엌은 식당으로 불린다.

이 극단적인 대비하에서 순옥 가족은 지하실방으로 보내진다. 이곳에서 순옥의 질문과 묘산의 대답으로 구체화된 외조부, 외조모의 고난스런 삶이 추가된다. 이 극명한 구도에서 독자는 몸이 아프고 교육받지도 못하며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도 못한 피폭자 가족의 사정을 넘어 원폭 이전 식민지 시대까지 대면하게 된다.

간단히 순옥 일가 3대의 생애사를 정리해 보면, 외할아버지 흥 서방은 20세 되기 전 가난 때문에 현해탄을 건너 히로시마에 정착해 간장가게 점원으로 일하면서 스시집 점원인 일본여성 미에 상을 만나 결혼하고 게이꼬¹²⁾를 낳게 된다.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을 때 미에 상과 딸 게이꼬(소학교 2년)는 피폭을 당하는데, 흥 서방은 후쿠야마 철광소에서 광부를 하고 있어서 피폭을 피했다. 일가족은 해방 이후 1945년 10월 합천으로 돌아와 소금장수를 시작했다. 아들 흥일동은 원폭후유증(머리 작고, 사팔뜨기, 모자람)으로 일찍 사망했고 딸 게이꼬는 나 씨에게 시집가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원폭후유증으로 일을 못해 3년 만에 쫓겨났다. 이후 게이꼬는 정동철과 결혼하여 순옥을 낳았고 수임 출산 5일 만에 사망했다.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2년 남짓이다. 외할아버지 부부는 일본으로 밀항한 이후 연락이 끊겼다. 순옥의 아버지 동철은 과거 히로시마에서 피폭 당했다가 10살 쯤 합천에 홀로 돌아와 푸줏간 백정 일과 남의 집 허드렛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다. 주인공 순옥은 1등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지만 농업고등학교 때 아파서 원폭에 대해 공부를 한 이후 충격을 받고 거칠게 세상을 살다가 농민 운동을 하기도 했다. 현재 그는 무릎, 허리 신경통과 고질적인 두통 등을 겪으며 과로하거나 피로하면 코피를 흘려서 일을 쉬고 있는 상태다. 수임은 몸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고 난청에 말도 어눌하며 정신박약이다.

12) 원래 이름은 경자(京子)인데, 어머니가 일본 여성이어서 사람들이 그 딸을 경자 대신 “게이꼬”라고 불렀다.

정리하면 순욱 가족은 운 좋게 피폭을 피한 외할아버지를 제외하고 외할머니와 양부모가 모두 피폭을 당했고 한 명은 사망했으며 순욱과 수임은 원폭2세로서 원폭 유전이 의심되는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러한 맥락 때문에 한국인 피폭자의 삶은 민족의 수난사와 결부된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의해 억압과 궁핍한 삶에 시달리던 조선인이 살기 위해 일본 히로시마에 건너가 일을 하지만 강대국의 전쟁의 결과로 원자폭탄을 맞아 사망하거나 사실상의 장애인이 되어 원인모를 질병과 가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민족의 수난사’이자 ‘피폭자의 수난사’로서 피폭자의 생애사를 구성하는 소설의 기본골격이 된다. 이 소설을 읽은 독자는 피폭자 집단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는 동시에 원폭과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자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묘산의 일가족은 피폭자의 열악한 처지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역할에 국한되지 않는다. 작가는 묘산 가족을 매개로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소외되었던 피폭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의 실체를 독자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전략을 취했다. 앞에서 간략히 정리한 생애사는 글로 배우는 일대기일 뿐이다. 그러나 피폭자는 지금도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들이 겪는 사회적 차별과 냉대, 무시, 소외는 지속되고 있다. 『흉터의 꽃』의 작가 김옥숙은 피폭자가 한국에서 살아가는 일상을 “원폭지옥”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묘산은 고향에서 평판이 나빠질까봐 체면 때문에 순욱 가족을 ‘고향 손님’으로 대하는 위선적 인물이고 그 아내 이 여사는 과시욕과 “속물성 이기주의”의 전형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런 묘산이 순욱 가족을 맞이했을 때 이들의 인상은 “거지가족”이었다. “그는 맞은편에 나란히 앉은 셋 쪽에서 쉰내 섞인 지린내가 은은하게 풍겨옴을 느꼈다. 안사람이 돌아와 셋의 모색을 본다면 의자 더럽힌다며 눈살깨나 찌푸리라 짐작”¹³⁾했다. 묘산은 자식들이 유학을 떠나 2층에 빈방이 많은 데도 이 가족을 반지하방에 머물게 했다. 이 여사는 더럽고 전염될지 모른다고 시종일관 여관으로 쫓아내라고 외친다. 이들에게 가난한 순욱은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되었고 일가족은 피폭자로서 원폭증의 전파자로도 간주되었다. 이 여사는 순욱 가족이 이튿날 저녁에 식당(부엌)에서 식사를 했다고 야단법석이었

13) 『그곳에 이르는 먼 길』, 200면.

고 삼일 제 저녁에는 순욱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외쳤다. 이에 순욱도 무시하지 말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작가는 피폭자의 고된 일상과 소외감을 강조하기 위해 ‘서울살이’와 ‘피폭자 치료 행정체제’를 추가적으로 배치했다. 사실 타향에 와서 길을 헤매는 것은 피폭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피폭자가 서울의 원폭 지정병원에서 진찰을 받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도 하다. 원래 운전사와 자가용이 있는 묘산 화백이 차를 내렸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묘산은 차 대신 교통비를 줬다. 작가는 눈이 내린 한겨울로 시간적 배경을 설정하여 지하철과 버스는 사람들로 만원이다. 이 가족은 교통지옥을 겪으며 환승을 거듭했고 지하철에서는 순욱이 소매치기를 당해 준비해온 전 재산 7만원을 잃어버리기도 했다. 심지어 여동생과 아버지는 지하철 타고 가다가 사람들에게 밀려서 강제로 내리게 되는데 구역질까지 한다. 이들은 동대문에서 내려서 적십자 병원까지 걸어서 이동했다. 병세가 완연한 아버지 동철은 서울에 올라온 지 3일 만에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져 생명이 며칠 남지 않은 단계까지 이른다.

병세 악화는 ‘피폭자 치료 행정체제’도 큰 몫을 차지한다. 이 가족은 한국원폭 피해자협회를 거쳐 겨우 적십자 병원에 도착했다. 하지만 적십자 병원의 구호과는 원폭치료 자격을 확인만 해줄 뿐이다. 지정병원인 경희의료원에 가야 의사를 만날 수 있다. 즉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서 진료의뢰확인증을 발급하고 적십자병원 구호과에서 그 증을 확인해 무료진찰 조치를 한 후 지정병원에 가야 진찰을 받고 그 결과가 일주일 후에 나오는 게 피폭의료행정의 여정이다. 이런 복잡한 절차는 몸이 아픈 피폭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의료체계다. 일본 정부의 거출금을 받는 곳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직접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특히 작가는 이 일가족을 계속 기다리게 했다. 대중교통 이용할 때뿐만 아니라 경희의료원에서 원무과 접수 후 4군데에서 아버지가 검사를 받는데 계속 기다리도록 설정이 된다. 내시경 검사를 위해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병원을 찾은 아버지 동철은 몸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는데 한참 기다린 후에도 간호사는 점심시간이 됐다며 더 기다리라고 한다. 심지어 4일째에 고향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검사결과도 일주일을 기다려야 알 수 있다.

돈이 없어 서울에서 단기체류 계획으로 올라온 피폭자는 입원은커녕 진단 결과도 얻기 힘든 구조다. 독자는 순욱 일행이 묘산의 집에서 나와 병원에 이르는 여정을 읽는 과정에서 대단한 불쾌함과 숨이 막히는 답답함을 경험하게 된다. 피폭자가 일상에서 느끼는 심정을 독자가 대리체험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순욱은 삶이란 자체가 이렇게 초조히 끝없는 기다림의 되풀이일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고비를 넘기면 다시 한 고비가 찾아오고, 그 고비를 겨우 넘기면 다시 허위넘어야 할 고비가 찾아오고, 그 고비를 가까스로 또 넘기면 다시 새로운 고비가 앞을 막은, 참으로 지루한 먼 길 - 목숨을 연장시키기 위한 실낱같은 기대도 무너져선 끝내 이르고야 말 죽음을 알면서도 지척거리는 걸음으로 고비고비를 넘어 걷고 걷는 삶의 도정이야 말로 지겨운 기다림 그 자체였다. 쓰러져 밟히며, 주위로부터 갖은 모독을 당하며, 시행착오를 겪어도, 저 멀리 기다리고 있을 삶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기까지 포기할 수 없는 인생. 그 마지막 지점을 희망이라 여겨 힘차게 걷는 사람도 있을 터이다. 그러나 끝내 이르러 그 앞에 서면 희망의 깃발이 절망의 조각조각으로 기워놓은 누더기에 불과함을 알 것이다. 아버지는 물론 자신이 바로 그런 삶의 길을 허위허위 걸어가고 있는 셈이었다. 무수한 고비를 넘겨야 이르는 저 멀리 보이는 누더기 깃발을 향해, 지금도 기다리는 이 무의미함이야말로 세 식구 삶의 다름 아니었다. 순욱의 생각이 그런 비관에 젖어 있었다.¹⁴⁾

인용문은 정신과 앞에서 기다리던 순욱이 ‘기다림’을 자신과 피폭자의 일생에 적용해 생각하는 대목이다. 이 소설의 제목인 ‘그곳에 이르는 먼 길’도 여기서 나온 것이다. 피폭자의 인생은 “고비가 찾아오고, 그 고비를 가까스로 또 넘기면 다시 새로운 고비가 앞을 막은, 참으로 지루한 먼 길”이고 “고비를 넘어 걷고 걷는 삶의 도정이야 말로 지겨운 기다림 그 자체였다. 쓰러져 밟히며, 주위로부터 갖은 모독을 당하며, 시행착오를 겪”는 게 인생이다. 희망은 누더기 깃발이 되고 그 “누더기 깃발을 향해, 지금도 기다리는 이 무의미함이야말로 세 식구 삶의 다름 아니었다. 순욱의 생각이 그런 비관에 젖어 있었다.” 이처럼 반복되는 고난과 고통 그리고 극복의 무의미함이 피폭자의 삶이다. 반복되는 생의 고통과 기다림, 이 무의미함이 죽음 충동을 일상적으로 야기한다. 또한 자살을 하지 않아도 원폭후유증에 의한 병이 죽음을 인도한다. 아버지 동철은 병원에 가면서

14) 『그곳에 이르는 먼 길』, 289-290면.

지치고 내시경을 받는 과정에서 토하고 진단을 위해 식사를 하지 않으면서 심각하게 몸이 악화되어 혼절을 거듭하다가 결국 3일째 저녁에 입원하게 된다. 피폭자가 정신과, 방사선치료 등 불필요한 진료를 받다가 오히려 생명을 위협받는다는 게 작가의 의도다. 피폭자의 몸 상태와 심리를 고려하지 않은 의료행정 시스템은 피폭자 전문의사와 의료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을 환기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미비는 정부의 무관심과 홀대, 사회적 소외를 환자에게 각인하는 작용을 한다. 즉 ‘기다림’이란 사회적 냉대와 소외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와 같이 정치경제적 혜택의 배제뿐만 아니라 사람의 무시, 제도의 소외가 심리적인 위축을 가속화하고 소외감을 극대화하며 순욱의 말처럼 “비관”이 내면화한다. 빈곤, 병, (혜택과 관심의) 기다림, 무의미함, 실망, 낙담, 비관은 피폭자의 자살충동의 근본조건이다. 순욱도 고등학생 때 자신이 원폭 2세인 것을 인지한 이후 여러 번 자살을 결심했다고 기술되어 있다.

요컨대 작가는 ‘묘산 가족의 멸시와 서울살이의 불편함, 피폭자 의료행정체계의 현실’의 문제를 절합하여 피폭자가 일상에서 겪는 차별과 무시, 소외 심리와 비관, 자살충동을 독자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원폭에 의한 피폭 후유증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피폭자의 ‘원폭지옥’의 생애사가 ‘민족 수난사’의 서사를 넘어서 사회화 되고 있다.

3. 분신자살과 핵의 위험성, 원폭의 사회화

1) 원폭2세의 요청서와 분신자살

순욱의 아버지는 사망 직전 상황이고, 여동생 수임은 정신박약의 상태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순욱 가족 중에 세상에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은 순욱밖에 없다. 1991년 11월 일본의 1차 거출금이 지원된 이후 상황에서 작가는 순욱의 입을 빌어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어떤 염원을 대신 발화하고자 했을까. 학창시절 성적이 1등이었다던 순욱은 곧 사학과 3학년으로 올라가는 묘산의 막내딸 정혜나 정혜 동료 운동권 학생 창세, 영무보다 더 지적이고 핵문제를 가장 많이 알

고 있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을 원폭증으로 믿고 있는 순욱의 발화가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셈이다. 작가는 순욱과 관련해 ‘요청서와 분신자살’이라는 문학적 장치를 설정했다. 순욱이 서울에 올라올 때 5개의 요청서를 준비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일본대사관에 보내려 했던 요청서가 유일하다.

요청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선 소설의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간단히 요약하면, 아버지의 경희의료원 진찰 후 순욱은 정혜 일행과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이끌고 일본대사관으로 향했다. 대사관을 경비하는 경찰에 막힌 그는 묘산의 집에 돌아와서 이 여사의 멸시를 받고 분노해 집을 나간다. 다음날 그는 전날 밤 병세가 악화돼 병원에 입원한 아버지를 퇴원시켜 동생과 함께 광화문 앞 시위를 하러 간다. 시위행진을 시작한 순욱은 갑자기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 자신과 아버지의 몸에 시너를 붓고 분신자살을 했다. 그의 요청서는 발견될 수 있도록 가방에 담아 옆에 둔 상태였다. 동생 수임이 그 모습을 보고 오열하는 장면으로 소설이 끝난다. 이런 맥락에서 그 요청서는 순욱이 바라는 가장 핵심 사안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첫째, 일본 정부는 지난 1965년 기본조약과 함께 체결된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한일경제협력협정에 따라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한국정부에 지급함으로써 모든 대일 재산 및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한국인 피폭자들은 그 문제가 거론되었다는 사실조차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65년 협상시 일본측은 태평양전쟁의 한국인 사망자를 2만 1천 9백 19명, 유해 2백 32구라는 자료를 제시한 바 있으나, 이는 그후 속속 밝혀진 역사적 진실과 사료에 의해 허위임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물론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한국인 희생자는 그 자료에 제외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제 징용으로 동원된 한국인 피폭자를 일본의 태평양전쟁 수행자로 간주할 때 사망 및 생존자의 보상이 새롭게 제기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본 의회가 입법화한 자국민 피폭자 원호금 지급규정에 준하여 한국원폭피해자협회가 작성한 23억 달러의 배상책임을 일본은 반드시 저야 합니다. 둘째, 일본정부는 한국인 피폭자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1969년 이후 1년에 2명에서 10명 내외로 독일 치료를 주선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사회에 내보이는 전시효과적 생색으로, 이를 과감히 전면 수정하여 한국인 피폭자에 한한 피폭 치료는 자국민 피폭자 치료 수준에 준하여 동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배상청구나 개인청구와 상관없이,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조례(ITM조례)의 제6조 C항에

규정된 ‘인도(人道)에 관한 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통석(痛惜)’이 공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피폭자 지정병원에서 원인을 피폭에 의한 질병으로 진단할 경우, 일본은 인원에 구애됨 없이 초청도일 치료를 주선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은 자국 원폭병원의 전문의를 한국에 출장시켜 한국인 피폭자의 정기적 검진과 치료를 담당케 함으로써 인술(仁術)의 사명을 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 위 두 조건에 선행하여 90년 5월 노태우 대통령의 도일시 일본 정부가 약속한 ‘인도적 측면’의 단서 아래 원폭 피해자를 위해 회사하기로 약속한 40억 엔을 하루 속히 완결지어 피폭자가 그 혜택을 입도록 조치해 주어야 합니다. 대체로 이제 고령자인 피폭자들은 그동안의 병고와 생활고로 속속 사망하고 있으므로, 일의 선후가 있듯 시효를 늦출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위 세 가지 요망에 대한 일본 정부 당국의 성의 있는 대응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5)

순욱은 요청서에서 핵심 3가지를 언급했다. 첫째 일본 정부는 한국원폭피해자 협회가 요구하는 23억 달러의 배상책임을 지켜야만 한다. 둘째, 일본 정부는 생색내기용 도일치료에서 벗어나 한국인 피폭자의 피폭 치료를 일본 피폭자 치료 수준에 준하여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셋째, 회사하기로 한 40억 엔을 하루 속히 완결지어 피폭자가 그 혜택을 입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세 가지는 사실 다 연결되어 있다. 실제로 도일치료가 중단되자 1987년 11월 30일 한국원폭피해자 협회 회장이 일본대사관을 찾아 23억 달러 배상요구를 했다. 일본 자국민과 동등 대우를 원한 것처럼, 이 금액은 당시 피폭일본인이 보상받고 있는 국가예산 기타 원호수단 및 급부를 기준으로 1987년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피폭자 2만 3천여 명(추정)을 계산한 배상액이었다. 40억 엔을 빨리 완결하라는 것은 1991년 11월 1차 지급에 이어 2차분 23억 엔 입금을 가리킨다. 당초 2차분은 1992년 입금 예정이었고 조금 늦어져 1993년 2월에 지급 완료되었다. 그렇다면 순욱은 이러한 점을 일본에 재차 촉구하고 한국사회에 알리기 위해 목숨이 경각인 아버지와 함께 분신자살을 한 것인가. 이 피폭자의 실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대 분위기를 알아야 한다.

(이맹희 씨의 항의문) 일본에 강제연행 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던 가족은 원폭에 의해 사망하고 나는 그때 받았던 상흔을 아직도 치료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15) 『그곳에 이르는 먼 길』, 301-302면.

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아이들이 유전에 의한 병마로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해방되고 나서 45년이 흘렀지만 보상금은커녕 치료조차도 충분하게 받지 못한 지금의 사정을 일본정부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바란다. 또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원망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들의 한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 부탁이다.¹⁶⁾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한국정부 및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복지증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40억 엔의 사용처를 협의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결정됐다.

- ① 무료치료(보험진료에 의한 의료비의 자기분담분 지급)
- ② 연1회 건강진단
- ③ 1인당 매월 10만원(2000년 8월 현재, 실시 당초에는 5만원) 진료보조비 지급
- ④ 장례비 1인당 150만원(2000년 8월 현재, 실시 당초에는 70만원)
- ⑤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건립(1996년 10월 완공)¹⁷⁾

1990년 5월 한일회담에서 일본의 40억 엔 지불 결정이 났을 때, 한 달 여가 지난 6월 11일 서울 여성 피폭자 이맹희(65)가 일본대사관 앞에서 항의문을 뿌리고 농약 음독자살을 기도한 사건이 발생했다.¹⁸⁾ 40억 엔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협회가 요구한 23억 달러보다 훨씬 적었고 일본 피폭자들을 위한 일본의 1년 예산 2,300억 엔에도 한참 못 미쳤다. 한국인 피폭자들은 이 금액을 가지고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실망감과 분노를 나타냈다. 이맹희의 음독 시도는 그 극단적인 반응의 하나였다. 삼자가 보기에는 무료치료와 10만원 수당이 제공되고 합천에 원폭피해자복지회관이 건립되어 회관 거주도 가능해졌지만, 한국인 피폭자는 일본인 피폭자와 똑같은 치료비 지원과 각종 수당(보건, 건강관리수당 등)을 원했다. 보통 피폭자는 궁핍해서 생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당처럼 현금지원을 원했다. 이맹희 사건의 영향을 받은 작가 김원일이 이맹희처럼 요청서를 설정하고 순욱과 아버지까지 동반해 충격적인 자살을 하는 서사 구조를 만든 셈이다. 이런 맥락을 참고하면 작가는 당대 피해자의 염원을 반영해 소설 속 요청서를 작성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요청서 내

16)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편찬위원회 편, 2011 앞의 책, 222-223면.

17) 위의 책, 222면.

18) 「원폭피해자 음독 중태」, 『조선일보』, 1990.06.12, 23면.

용과 동반 분신자살이 피폭자의 바람을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전략이었을까.

정순옥과 이맹희의 요청서와 자살 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큰 차이가 있다. 이맹희는 원폭 1세인데, 정순옥은 원폭 2세다. 또한 순옥은 단독 음독자살을 시도한 이맹희와 달리 병환이 심해 생명이 다한 아버지와 함께 동반 분신자살을 했다. 문제는 원폭 1세 이맹희는 순옥의 아버지 동철처럼 무료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원폭 2세 순옥은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없다. 원폭 1세대는 사실 일본의 1991년 11월 1차 거출금 지원 이전에 이미 무료 진료가 시작되었다. 1989년 8월 15일부터 한국원폭피해자협회가 원폭피해자 치료를 전액 무료로 해주었다. 7월부터 전국민의료보험 제도가 실시되면서 원폭피해자 대부분이 의료보험혜택을 받게 되었는데, 보험이 원폭피해자 개인부담금의 50%만을 지원하자 한국원폭피해자협회가 나머지 50%를 부담해 치료비를 전액 무료화 했다. 이로써 원폭피해자들은 교통사고나 자해사고 이외에는 원폭후유증이 아닌 질병도 전액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¹⁹⁾

하지만 원폭 2세는 여전히 제외되었다. 미국과 일본이 원폭의 유전을 의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폭 2세의 병도 유전에 의한 원폭후유증으로 공식 인정 받지 못한다. 이는 지금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그래서 소설에서 순옥과 여동생 수임도 갖가지 병을 앓지만 무료 치료 지원을 받지 못한다. 소설에서 원폭 3대의 가족생애사가 제시된 것도, 원폭 2세가 원폭유전에 의한 원폭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것을 원폭 2세(순옥, 수임)의 '병든 신체'로 세상에 증명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원폭 2세 순옥의 치솟는 분노가 일본정부와 한국정부 및 시민사회에 전해지기 위해서는 '원폭 2세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요청서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하는데 원폭 2세의 바람은 오히려 제외되어 있다. 그는 미약하지만 많은 점에서 개선되고 있는 원폭 1세대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목소리를 내며 동반 자살을 한 셈이다. 그것도 심지어 일부는 실현되고 있었다. 그

19) 『原爆피해자치료 전액 무료로 피해자협회서 개인부담금 지원』, 『동아일보』, 1989.08.08, 13면.

래서 이 소설은 원폭 피해를 잘 아는 독자가 아니면 ‘원폭 2세의 현실과 문제’까지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한 분신자살은 이맹희의 자살기도 외에도 ‘1991년 분신정국’의 투쟁방식이 투사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순욱이 아버지와 동반자살을 한 것은 일부 무리한 설정으로 비춰진다. 순욱이 고등학생 때 원폭 문제를 알게 되어 좌절하고 농약을 가져와 가족자살을 하려했을 때 아버지는 반대했다. 그런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 서울에 진료 받으러 올라온 것인데 아들 순욱은 지나치게 끌고 다니며 병세를 더욱 악화시킨다. 추운 한겨울에 혼절을 거듭한 아버지는 삼일 췌에 이미 병원에 입원해 목숨이 위험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는다. 묘산 화백은 아버지를 흑사시킨 순욱을 크게 야단쳤다. 그런데 순욱은 아버지를 퇴원시킨 후 광화문까지 데려간다. 그는 생명이 다한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시너를 뿌리고 함께 분신자살을 한다. 정신없이 사경을 헤매던 아버지 동철이 갑자기 아들에 의해 광화문으로 옮겨져 화형을 당해 죽는 형국이다. 게다가 동철은 원폭 1세대. 원폭을 경험한 생존자는 폭탄 투하 당시의 열기와 충격이 떠오르기 때문에 불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꺼린다. 그런 피폭 생존자에게 화형을 가한 셈이니 동철로서는 두 번째 죽음의 공격을 당한 셈이다. 순욱은 한국사회에 피폭자 죽음의 충격을 주고 자신의 자살의 정당성을 위해 원폭 1세로 증명이 된 아버지를 억지로 죽음에 가담시킨다.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원폭 2세가 혼자 죽어봐야 세상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동생 수임은 원폭 2세로서 생존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산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살려둔다. 이렇게 동의하기 어려운 순욱의 생각과 행동이 원폭 2세를 사실상 대변하지 않는 요청서와 결부되기 때문에 독자로서는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결론적으로 작가 김원일은 원폭 1세와 달리 ‘원폭 2세의 문제’는 온전히 인식하며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의 자살은 ‘피해자의 존재와 한’을 환기하는 효과가 있지만 독자에게 ‘피해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가 없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겪는 특정 문제를 사회화하여 공적기억화 하는 기록 작업에는 관련 단체의 역사를 언급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김옥숙의 『흉터의 꽃』에도 원

폭 2세 운동의 선구자격인 김형률이 자세히 거론된다. 그런데 김원일의 『그곳에 이르는 먼 길』에는 운동가나 단체의 활동 및 역사가 사실상 완전히 소거되어 있다.

앞에서 ‘한국인 원폭피해자 운동의 역사’는 국내에 다양한 협조를 구해온 ‘협회활동의 역사’와, 일본의 시민단체나 정치인들의 지원과 연대 속에서 이어져 온 ‘재판운동의 역사’라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원일의 글에는 재판 언급이 전혀 없고 협회만 등장하는데 피폭자를 위해 분투해온 협회의 과거 이력은 안내가 없다. 사망한 피폭자의 장례를 도와주고 동침처럼 무료진료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확인증을 내주는 것밖에 없다. 그러나 순욱이 일본대사관에 보내려고 쓴 요청서 내용도 당시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서 이미 지속적으로 일본정부에 요구하고 있던 사안이었다. 2차 거출금 지급 이후인 1994년 7월 23일에도 협회 회원 113명은 다른 태평양전쟁 피해자들과 함께 일본대사관 앞에서 데모를 하며 23억 달러 보상청구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었다.

협회는 1969년부터 한국에서 매년 위령제를 지내고 일본에서 진행된 재판을 지원하며 권리투쟁을 해왔다. 그 운동의 역사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증진시킨 대표적인 소송이 원폭 1세 ‘손진두(1972.10.2-1978.3.30)와 박귀훈의 소송(1998.10.1.-2002.12.5)’이다. 또한 협회는 1980년 말부터 5년여에 걸쳐 독일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일정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협회의 역사에는 일본 진보적 지식인과 시민단체의 지지와 협조가 있었다.²⁰⁾ 순욱과 그 일가족은 이들 단체나 운동가와 전혀 별개로 고립된 존재로 등장했다. 합천은 원폭피해자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이고 피폭자 건강진단과 치료를 맡은 합천의 원폭진료소나 인근의 원폭치료 지정병원으로 영남대부속병원이 있었지만 전혀 얘기가 없다. 한국인 피폭자와 일본정부의 구도로만 글의 골격이 잡혀 있어서 한일 시민단체의 연대는 물론 중국, 미국, 브라질 등에 살고 있는 다른 피폭자에 대한 언급도 없이 한국만의 문제처럼 기술되어 있다.

정리하면 작가는 순욱과 아버지의 동반 분신자살로 ‘피폭자 가족의 고생담과 한’을 부각하고 극대화 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기다림’과 자살에 준하는 죽음이

20) 원폭 관련해 한일 시민연대에 대해서는 오은정, 2018 『‘제국의 신민’에서 ‘제한피폭자’로』 『기억과 전망』 39, 103-147면을 참조할 것.

되풀이되는 피폭자의 삶과 고통이 독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는 당대 피폭 당사자의 자살 기도 사건의 역사적 반영이기도 했다. 다만 해당 작품은 ‘원폭 2세’의 바람을 온전히 대변하지는 못했고 한국인 원폭 피해자 및 단체의 투쟁 역시 전하지 않아 운동 기억의 사회화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2) 핵의 위험성 - 원전 사고, 핵무기

1992년 원폭 피해자를 논한다는 것은 과거 1945년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뿐만 아니라 집필 당시의 핵문제도 시야에 넣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실제로 작가 김원일이 『그곳에 이르는 먼 길』을 쓰면서 “핵 문제가 민족전체의 생존과 결부돼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원폭의 끔찍함을 담고 싶었다.”²¹⁾고 밝힌 것처럼 1990대 초반 당대의 한반도와 핵문제가 창작의 중요한 동인이었다. 그런데 당시 북한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폐기장 반대 운동도 사회적 의제였다. 소설에서는 1945년 히로시마 피폭이 핵심이지만 핵을 말한다든 것은 인류의 핵 이용의 전반의 문제와 결부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핵의 이용’에서 한 축은 전쟁과 정치의 도구로서 ‘핵무기’가 있고 다른 한 축은 에너지정책으로 ‘원전’이 있다. 핵무기 폐지론자는 ‘핵무기의 전쟁억지력 신화, 공포에 기댄 평화론’과 싸워야 했고, 탈원전 운동가는 ‘원전의 안전신화, 경제성 신화, 핵의 평화적 이용 신화’와 맞서야 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그곳에 이르는 먼 길』에서 핵의 위험성이 과거뿐만 아니라 당대적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동원하는 핵문제는 작가 김원일의 핵인식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이 된다. 동시에 김원일이 포착한 핵문제가 소설을 읽는 일반 대중독자에게 전달되고 경각심을 강화하며 대중화된다. 반핵운동의 역사를 보다 대중화하고 사회화하는 ‘기억의 역사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을 때 김원일은 앞에서 본 것처럼 ‘피폭가족 생애사’를 내세웠고 다른 한 축으로 ‘투쟁의 방식’으로서 요청서와 분신자살을 제시했다. 투쟁은 일종의 비판이며 원폭 피해자를 방치한 한국과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 외에 비판의 또 다른 대상으

21) 『인터뷰 “분단文學, 『이념』은 이제 한계 『피폭자의 버려진 삶』 더 절실”』, 『경향신문』, 1992.05.18, 19면.

로서 핵폐기장, 원전, 핵무기와 같은 다양한 핵 활용이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이 부수적으로 작품을 구성했다. 과거의 1945년 원폭 피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핵 위험의 현재성을 강화하여 지금 여기의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는 것은 원폭 피해자를 향한 대중의 더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서사전략이다. 이런 점이 김원일 소설의 반핵의 전체상이 되고 대중이 원폭 피해자 문제를 넘어선 핵 인식을 갖도록 하는 서사 효과가 있다.

먼저 작가가 '원자력 발전소' 문제의 논거로 삼은 것을 살펴보자. 당시 한국에 서는 핵폐기장 부지 선정이 큰 문제였다. 1985년 영광 원전 1·2호기가 시험가동을 시작한 이래 기형어, 조개·굴 폐사, 노동자 방사능 피폭, 기형아 출산 등이 발생해 공해추방운동연합이 '공해추방과 반핵평화'의 기치를 내걸고 발족(1988)하고, 원전 핵폐기물 불법 매립이 문제가 되어 원전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1989년 3월, 정부가 비밀리에 경북 동해안 영덕, 영일, 울진 3곳을 핵폐기장 후보지로 지정한 사실이 드러나자 영덕을 필두로 3개 군 주민들이 강력한 반대 활동을 펼쳐 후보지 선정계획을 무산시켰다. 이듬해인 1990년 11월 정부는 충남 안면도를 과학연구단지로서 속여 핵폐기장 부지터로 선정하려했으나, 안면도 주민들은 동해안 주민보다 더 강력한 활동을 벌여 백지화시켰다. 특히 김원일이 이 소설을 집필하고 있을 때,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강원 고성(1991.7)을 시작으로 강원 고성·양양, 경북 울진·영일, 전남 장흥 등 6개 후보지역(1991.12), 굴업도(1994.12), 전북 부안 위도(2003.7) 등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²²⁾

이에 비추어 『그곳에 이르는 먼 길』에서는 작품 초반에 묘산 화백의 아내 이여사가 “핵 처리장인가, 그 시설 들어서는 걸 막무가내 반대하는 지역 주민 데모 소식도 못 들었냐. 난 집안에다 그런 중병환자들을 그냥 두고는 못 봐!”²³⁾하고 말할 때 핵폐기장 문제를 언급한 게 유일하다. 김원일은 이 핵폐기장 사안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크게 주목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원전과 관련해 표나게 내세운 것은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한국전력 직원의 피폭 문제다.

22)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편, 2014 『한권으로 꿰뚫는 탈핵』, 무명인, 274-275면.

23) 『그곳에 이르는 먼 길』, 206면.

“아빠, 정말 왜 그러세요? 아빠도 순옥 씨 이야길 들어보세요.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있고 사년 후 통계로, 이백이십만 명이 방사능에 오염됐대요. 가까이 위치한 민스크 시의 한 병원에서만도 갑상선 암으로 육천 명이 사망했구요. 체르노빌 사고에서 당국은 공식발표를 통해 서른한 명이 사망했다 했으나 차츰 그 비극의 진상이 밝혀지면서,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방사능 오염에 따른 질병으로 십만 명은 사망했을 거래요. 사망 원인은 주로 암인데, 갑상·입술·식도·위장...”²⁴⁾

여기서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관련해 이 여사가 “소련 어디에 원자로 방사능이 새어나와 사람들이 때죽음을 당하고 기형아며 기형가축이 태어났다던데, 원폭병이란 게 전염성은 없답니까?”²⁵⁾란 발언을 한다. 방사능과 전염성이 결부되고 있다. 며칠밖에 안 되지만 이 여사는 순옥 일가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전염의 공포와 불안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사실 피폭자의 원폭증은 타인에게 전염되지 않는다. 이러한 대목은 독자에게 원폭 피해자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대한 지식의 전파과정이다. 순옥이 묘산의 막내딸 정혜(사학과 3학년이 되기 직전)에게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피해 규모 등 실상을 얘기해준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순옥이 역사학 전공 대학생에게 역사 지식을 전달하는 장면이 흥미롭다. 또한 순옥은 정혜 동료 운동권 학생과 대화 나눌 때 ‘죽음의 재’도 설명한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때 방사능 물질(죽음의 재)이 바람을 타고 “동북 방향으로 불어 폴란드·독일·프랑스까지 영향력을 미쳐선, 중부 유럽까지 포도 농사를 아주 망쳐 버리고 말았”²⁶⁾다. 물은 물론 땅도 심각할 정도로 방사능에 오염되어 버렸다. 이처럼 원전 사고의 위험성이 전파되고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사학과 대학생들이 작품 마지막에 순옥의 시위에 동참하게 된다. 원자력발전소가 핵무기와는 다르지만 원전 폭발사고의 결과는 핵무기의 피해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방사능 오염과 생명의 살상을 수반하기 때문에 반핵 투쟁의 강력한 동인이 될 수 있다. 원폭 피해자의 운동에

24) 『그곳에 이르는 먼 길』, 252면.

25) 『그곳에 이르는 먼 길』, 205면.

26) 『그곳에 이르는 먼 길』, 313면.

원자력발전소 피해자와 반원전운동가가 가담할 수 있는 인식의 지평이 독자에게도 열리는 것이다.

“...증기발생기의 냉각수를 증기로 바꿔주는 관 있잖아. 자네도 견학할 때 필폐된 창구를 통해서 봤을 거야. 그게 늘 말썽이란 말이야. 모두 6천 7백 7십 6개나 되는 가느다란 그 관이 자주 부식되거든. 그러면 세관재생을 안 해 줄 수 없어. 작년까지 천 2백 7십 4개나 세관재생을 하거나 관막음을 해줬어.”

“비밀방호복을 입고 땀질 작업을 하는데도 방사능이 뚫고 들어온다니.

“수실 안에 뛰어들어 삼 분 안에 작업을 마쳐야 하는데, 어디 꼭 그 시간 안에 끝나. 사 분도 걸리고 오 분도 걸리지. 내가 안 마치면 다른 점퍼가 또 들어가야 하기에 끝을 보고 나오게 되는 게지”²⁷⁾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원전이 폭발한 경우인데, 한국전력 직원의 병원치료는 원전이 정상가동 중에 원전노동자가 방사능 피폭을 입은 예이다. 인용문의 소설 내용은 사실 탈원전 운동가에게 일반화된 얘기다. 원전 옹호자는 원전이 두꺼운 벽으로 봉쇄되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배관이 있다. 연구에 의하면 “건물을 연결하고 있는 관의 재료라는 것은 세계의 어떤 금속을 사용한다고 해도, 고농도의 방사선과 몇 천 도의 뜨거운 끓는 물이 혼재되어 흐르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 대개 1년 미만의 기한이어서 8개월 정도 지나 교체하지 않으면 방사선이 누출”²⁸⁾ 된다. 또 다른 위험은 원전 내부에도 있다. 대표적인 게 원자로 수리 작업이다. 이 원자로 격납용기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이 소설 속 “점퍼”다. 이 사람이 ‘점퍼가 되려는 견습공’과 함께 치료방사선과를 찾은 것이다. 원전 보수 작업에 투입되는 저임금 원전 하청 단순 노동자의 사망에 따른 ‘원전 하청과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작가는 이 사실을 소설에 담아 원전의 안전신화를 벗기고 지금 이 순간도 원전 노동자가 외부피폭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가시화했다. 요컨대 작가 김원일은 핵폐기장 건설 문제에는 민감하지 않았지만 폭발한 체르노빌 원전과 정상가동 중

27) 『그곳에 이르는 먼 길』, 287-288면.

28) 히다 순타로·오쿠보 겐이치(박찬호 옮김), 2015 『생명을 살리는 반핵』, 건강미디어협동조합, 178면.

인 한국 원전의 외부피폭 문제를 거론하여 원전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관련 지식을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했다.

두 번째는 집필 당시 화두가 된 원자폭탄 즉 ‘핵무기’ 문제이다. 민주화 이후 1988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가 조직되고, 동년 8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가 열리는 등²⁹⁾ 세계질서 재편에 따른 위기관리와 평화 통일의 맥락에서 핵무기가 거론되었고 세계적으로도 냉전 종식과 함께 핵무기 감축이 논의되고 있었다. 미국은 1991년 9월 27일 전 세계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의 지상·해상 발사 전술핵무기를 모두 철수하겠다고 발표했고, 고르바초프 대통령도 10월 5일 모든 단거리 전술핵탄두를 폐기하겠다고 화답했다. 한국에서도 1991년 10월 9일 남한에 배치된 미군의 전술핵무기 철수 결정이 있었고, 1991년 12월 13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협의서’(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되어 1992년 2월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이것은 국제적 냉전 종식과 북한의 생존전략 추구라는 협상 환경의 변화를 반영했다. 남북대화는 남북한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호혜적 동기가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³⁰⁾

이에 비추어 소설 『그곳에 이르는 먼 길』의 시간적 배경이 1992년 초 한겨울이고 해당 작품이 1992년 6월에 발표된 것을 감안하면, 작가의 집필 무렵은 아직 본격적인 ‘북핵 위기’ 이전 시기였다. 1993년 2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보다도 이전이다. 이 시기는 남북과 미소가 모두 화해 무드였다. 이런 시대 분위기에서 김원일은 소설에서 핵무기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일 메가톤급 핵폭탄 한 발이 터질 때, 그 과정은 순간적 폭발이 아니고 공중에서 십수 초 동안 연속된답니다. 연쇄폭발을 일으키는 거지요.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손으로 눈을 가려도 손이 비쳐 보일 정도라 카잖아요. 무엇보다 핵폭발의 가공할 위력은 열선(熱線)인데,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이 열선이 닿기만 하면 옷이 불타 버릴 정도니까, 폭발지점 가까이에 있는 건물이사 그냥 녹아 버리고 맙니다. 거센 불길이 사방에서 바람을 감아올리는 그 선풍형(旋風型) 화재가 직경 십 킬로 안을 문자 그

29) 『한반도 주변 핵 “민족 생존권 위협”』, 『한겨레』, 1988.08.26, 5면.

30) 김연철, 2018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창비, 160-163면.

대로 화끈하게 쓸었습니다. 그 다음이 폭풍인데, 일 메가톤 핵이 폭발하면 엄청난 폭풍이 몰아쳐서 폭발 중심에서부터 시오 리 안팎은 모든 건물이 그 폭풍을 맞고 한순간에 무너지고, 거목은 뿌리째 뽑히고, 일반 집들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백 리 밖에 까지 태풍 이상의 영향을 받게 되지요. 그렇다 보니 폭탄이 도심지 상공에서 폭발할 경우, 십 킬로 이내는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로 뒤죽박죽이 된 채 오히려됩니다...”³¹⁾

“육이오 전쟁 때 중국이 북한을 도와 참전하자 미국이 핵무기 사용 계획까지 세웠다면서요?”

잔을 반쯤 비운 영무가 창세에게 물었다.

“공격목표 일호는 중국 본토였다지만 한국내의 전투에까지 핵 사용을 심각하게 고려했다잖아. 펜타건(미국무성)이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놓고 결단을 내리기 직전까지 추진되었다더군.”

전쟁 중이더라도 핵무기 사용은 인도적으로 위법이라고 할 정도로 핵무기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살상무기다. 핵무기를 논하기 위해서는 핵무기의 위력뿐만 아니라 과거의 히로시마 원폭을 지적해야 하고 집필 당시의 한반도 핵무기를 다뤄야한다. 특히 한국은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는 전쟁 발발과 핵무기 사용이 항상 우려되는 세계적 분쟁지역이다. 인용문처럼 작가는 핵폭탄 폭발과 열섬화재, 열폭풍 등 핵무기의 위력을 제시하는 한편 과거 한국전쟁에서도 미국이 핵의 사용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의 갈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한국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작가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 한국전쟁의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원폭 피해자에게 미국은 가해자이며 남과 북의 대립 속에 핵무기가 사용되면 또 다른 원폭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

“미국 서부영화가 대부분 네바다 주와 유다 주에서 찍는데, 미국은 네바다 주에서만도 오십년대 십 년 동안 핵실험을 일백 회 가까이 실시했습니다. <정복자>는 그즈음 찍었는데, 감독이 끝내 암으로 죽었지요. 촬영 현장에 따라갔던 존 웨인의 두 아들도 모두 암에 걸렸고요. 유다 주 야외촬영에 참가했던 이백여 명은 나중에 그 절반 가까이 암에 걸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방사능은 특히 백혈병을 유발시키는데, 유다 주 경우 다른 주보다 백혈병 발병률이 사백 프로에 가깝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31) 『그곳에 이르는 먼 길』, 312-313면.

유다 주 무슨 도시 주민이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그곳 법원에서 핵실험 결과임을 시인 받고 승소했습니다.”³²⁾

핵을 개발해 일본에 실전 투하를 하고 한국전쟁에서도 사용을 고려했다는 것은 미국이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고 핵폭탄을 보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가는 1950년대 네바다 주에서 백여 회의 핵실험 영향으로 그 지역에서 서부영화 <정복자>를 촬영하던 감독과 배우가 암으로 사망하고 지역주민의 백혈병을 유발한 사례를 들었다. 존 웨인은 1979년 그리고 수잔 헤이워드는 1975년 사망했는데 두 배우의 죽음은 방사능 낙진 오염에 의한 것으로 한국에도 보도되었다.³³⁾ 실제로 미국에 이어 1949년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핵무기 실험이 가속화되어 1952년 수소폭탄의 시대가 열렸다. 또한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소규모 전쟁을 위한 전술핵무기의 필요성이 대두했다. 1954-1958년은 신무기 실험이 급증했다. 네바다 주는 핵실험의 한 지역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작가는 장거리 타이탄 미사일을 지키는 경비원이 엄청난 위력의 무기의 압박감에 정신장애에 걸렸다는 경우도 곁들였다. 즉 핵무기가 실전에 투입되지 않더라도 ‘핵실험’ 그 자체가 장소만 다를 뿐 핵 투하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작가는 핵실험에 의한 방사능 오염 문제도 독자에게 제시하고 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엇비슷합니다. 미대사관에 보내는 요망서만은, 원폭 투하에 따른 도의적 책임을 전쟁 당사국이 아닌 제삼의 희생자 입장에서 물었습니다. 비록 당시 한국이 일본에 점령당했다고 해서 미국이 한국인을 적국인(敵國人)으로 취급함은 합당치 못합니다. 일본 당국 요망서에서도 밝혔듯, 미국은 적국인이 아닌 한국인에게 ‘인도에 관한 죄’를 범했으므로 한국인 피폭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사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오늘의 한반도 핵 문제에 관련한 피폭 이세대로서 그 후유증의 심각성을 두고 견해도 밝혔습니다. 제 소견으로, 핵 무기는 한반도에서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하며, 세계 정치를 선도하는 미국은 비핵화운동에 솔선수범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³⁴⁾

32) 『그곳에 이르는 먼 길』, 311면.

33) 『死因은 落塵 맞아 發癌 존 웨인 放射能 피해』, 『동아일보』, 1980.11.05, 3면.

34) 『그곳에 이르는 먼 길』, 303면.

이와 같이 핵무기 문제는 실전 투하 가능성뿐만 핵실험의 위험과 핵무기 보유가 미치는 파급효과도 있다. 과거 1980년대 초 미소 냉전이 격화되면서 미국이 신형 중거리핵미사일을 서독을 비롯해 유럽에 배치하려고 했다가 세계적으로 반핵 시위가 일어났다. 태평양 섬 일대를 비롯해 아시아 지역의 반핵 운동도 함께 이루어졌다. 그래서 유럽과 일본에서 관련 국제회의도 빈번히 열리고, 세계비핵지대화운동도 활성화 되었으며,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촉구 선언 등이 있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5·18 광주'와 전방입소교육 등의 여파로 대학생의 반미·반핵 시위가 있었다.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을 감안하면 작가는 1980년대 반핵 상황이 나 태평양 섬 일대에 집중된 미국의 핵실험을 지적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소설에서 순욱이 미국대사관에 보내는 요청서를 준비했듯이 미국은 히로시마 피폭자에게 핵폭탄을 투하한 가해자다. 순욱은 미국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한국인 피폭자에게 사죄해야 하며 비핵화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한에서 미군의 핵무기가 철수하고 남북간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되는 당대 상황을 고려하면 작가의 지적은 냉전 종식 국면에서 미국의 전후 청산과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최소한의 발언으로 판단된다.

정리하면 작가는 '핵무기'와 관련하여 미국의 히로시마 원폭 투하, 한국전쟁 핵무기 사용 불발, 1950년대 미국 네바다 주 핵실험, 핵미사일 경비병의 정신장애, 비핵화운동 등을 거론했다. 이는 '핵무기 실험, 보유, 배치, 투하'의 영역에서 전 세계의 전술적 배치 문제를 제외하고 핵무기의 위험성을 독자에게 알리고 있다. 당시 남한의 핵무기 철수가 결정됐듯 작가가 한국인으로서 한반도의 문제에 만 주의를 집중하다보니 1980년대 거세게 일었던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개발과 전술핵무기의 세계적 배치가 미친 심각성, 반핵운동의 여파 등이 소외되어 버린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해방 이후 미국에 원폭 투하의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한국의 실정을 감안하면 미국과 관련된 논의는 작가로서 미약하지만 문제제기를 일정부분 실천한 셈이다.

4. 나가며 : 원폭지옥, 원폭유전

최근 외신을 통해 들어오는 보도가 심상치 않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 핵개발 지역의 '제한 폭격'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중략)… 북한의 핵개발 박차는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의 결사를 방불케 한다. 그 북한의 옹고집을 미국이 여러 차례 달래며 회유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이제는 매질이 필요하다는 강경책이 바로 '핵시설 제한적 폭격론'이다. 비록 폭격 대상 장소가 남한과는 먼 거리의 북한 한 지역이요, 너무 늦기전에 응징해야 한다는 국제여론의 당위성을 인정하더라도 대 북한 무력 사용은 정부 차원을 넘어 전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 …(중략)… 남북한의 핵시설 제거 문제는 강대국만큼 남북한 자체도 당연하고 절박한 문제이므로 이는 응당 당사자의 대화와 주변국의 조력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³⁵⁾

김원일은 1991년 11월 「'북한핵' 무력 저지라니…」이라는 글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제한 폭격'하려는 움직임을 크게 우려했다. 그는 핵 문제가 민족전체의 생존과 결부돼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곳에 이르는 먼 길」을 썼다고 했는데 그 배경이 일부분 해명되는 셈이다. 1991년 11월은 일본 정부가 한국인 원폭피해자를 위해 1차 거출금 17억 엔을 지급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 전년도에는 1990년 5월 거출금 지급 결정으로부터 한 달이 지난 6월 원폭1세 이맹희가 음독자살을 시도했다. 또한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원전 핵폐기물 불법 매립과 핵폐기장 부지 선정 문제로 시위가 반복되던 무렵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작가 김원일은 '원폭피해자와 자살', 핵무기에 국한되지 않고 체르노빌과 원전 외부피폭의 문제까지 일부 반영한 증편의 원폭문학을 구상한 것이다. 이는 당시 작가의 핵인식의 범주이기도 했다.

작가는 소설 등장인물의 고향을 합천군 묘산면으로 설정했다. 합천이 배경이 된 것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피폭자 중 귀환자가 가장 많이 모인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합천은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렸고 이곳에 원폭진료소에 이어 원폭피해자복지회관이 건립되었다. 이 공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가는 피폭

35) 김원일, 1993 『삶의 결 살림의 질』, 세계사, 208-211면.

여부를 기준으로 묘산 화백(53세 추정)과 정동철(58세)의 두 가족을 설정하고 대비하는 구도로 피폭자 가족의 고생담을 구축했다. 작가는 묘산에게는 특별하게 한국화 실력을 더하고 부와 명예를 갖추도록 한 반면, 동철 집안은 '외할아버지 흥 서방-아버지 정동철-원폭2세 손자 정순욱'에 이르는 3대가 가난과 병을 대물림하도록 구성했다.

독자는 묘산과 이 여사의 무시와 혐오 감정 표현에서 사회적 냉대를 체감하게 되고 복잡한 서울에서 힘든 이동과 불편한 의료행정 체계, 진료 과정에서 끝없는 기다림에 지친 동철 가족을 통해 제도적 소외감과 정부의 관심 부족을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독자는 전생에 걸쳐 지속된 궁핍과 병, 제대로 일도 하지 못하는 몸상태, 사회적 차별과 무관심, 냉대로 인해 순욱이 극도로 심리적 위축과 피로를 누적해왔고 일본정부와 한국사회를 향한 분노가 결국 동반 분신자살로 표출되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 원폭 피해의 참상을 한국사회에 알리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가 달성되고 있는 것이다. 1991년 11월 1차 거출금 지급 이전 8월 14일에 김학순 할머니가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동원 되었음을 처음으로 공개증언하는 사건이 있었다. 한국사회의 모든 시선이 '위안부'로 향할 때 김원일의 소설은 독자에게 소외되는 원폭피해자의 존재를 알리는 역할을 제한적으로 하는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

한국인 피폭자나 '위안부'나 식민지배와 전쟁의 피해자이자 일본정부의 전후 배상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피폭은 미국이 핵폭탄을 투하한 가해자였기 때문에 일본정부의 직접 책임이 있는 '위안부'와는 상황이 전혀 달랐다. 한국의 역사는 국내외 권력에 의한 억압과 탄압으로 재난에 준하는 사건이 연이어 다수 발생했기 때문에 특정 피해자의 목소리가 공론화되고 사회적 지원을 받으며 공적 기억화 되기가 쉽지 않았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민주화 이후 1990년대 이후에야 비로소 정부 주도의 '증언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제주4·3,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5·18광주민주화운동, '위안부' 등의 진상규명작업이 정부차원에서 진행되었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구술 방법론이 중요하게 부상했다. 당사자의 직접적인 증언이 국민 다수에게 전달되면서 공감을 자아내고 정부 지원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다양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한국사회에서 억울한 피해자의 목소리를 공론화하는 효과적인 전략이 무엇보다 요구될 때 그동안 정부의 ‘공적지원’이 피해 사실의 대중화를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어 왔던 것이다. 정부가 자금과 전문가를 투입해 전국적으로 피해자를 조사하고 행정적 지원을 통해 공식기록의 구축과 ‘기억의 사회화’를 실현하고 법적 제도화로 체계적인 보상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및 구술작업에 소극적이어서 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피해자의 원성이 컸다. 2000년대 일부 작업이 진행되었을 뿐이다. 그러면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회에 유입되지 않았고 2017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도 모르는 사회가 된 것이다. 이는 원폭 피해자의 사회적 의제화를 가로막는 주요 조건의 하나였다. 그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1990년대 초반 작가 김원일이 원폭피해자에 시선을 두고 창작을 통해 원폭의 참상을 서사화하고 대중화하려고 한 작업은 소중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김원일이 소설 속 구술에 의한 피폭자 가족생애사 전략을 취하고 그들의 지난한 삶을 가시화한 점은 의미가 있다. 다만 협회와 피폭자 그리고 한·일 시민단체의 투쟁의 역사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은 한계다. 이 때문에 일부 독자는 이 소설을 접하고 피폭자 운동이나 협회의 활동을 궁금해 했을지 모른다. 소설 속 역사의 부재는 역설적으로 핵 문제의 사회적 의제화를 통한 운동의 사회적 기억화, 공적 기억 구축의 필요성을 환기한다. 그렇지 않으면 순옥처럼 고립된 피해자가 자신의 문제 해결을 단체나 조직에 기대지 않고 ‘자살’이라는 방식으로 목소리를 드러내는 투쟁 문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소설은 작가가 애초에 주인공 순옥의 분신자살을 상정하고 소설을 쓴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된다. 순옥은 작품에서 원폭과 피폭자에 대해 가장 많이 아는 인물이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혼자 준비해서 아버지를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원으로 등록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일본의 1991년 지원 이전에 이미 협회의 조력으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일본정부의 40억

엔 지원이 결정되었을 때 그동안 협회에 등록하지 않았던 숨겨진 국내 피폭자들이 거출금 지원을 받기 위해 협회에 회원 등록을 하려고 모여들었다. 이때 협회는 등록 자격을 일본정부가 발급한 피폭자건강수첩 소지자로 한정했다. 당시 이 수첩을 받기 위해서는 피폭을 증명해줄 증인도 필요했고 일본까지 건너가 신청 발급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 순옥은 사학과 정혜와 그가 속한 동아리 운동권 학생들에게 원폭을 알려주는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혹사 수준으로 무리하게 아버지를 끌고 다니며 병세를 악화시켜서 사망 직전까지 이르게 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광 이사도 지역이나 인근 지정병원에 가면 되는 데 굳이 서울까지 왔나며 되묻기도 했다. 순옥은 미리 전화로 문의를 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다. 합천에는 가장 많은 피폭자가 살고 있어서 모임도 있고 정보도 많지만 전혀 언급이 없다. 게다가 순옥이 단독으로 자살하지 않고 아버지를 사실상 화형한 것도 독자로서는 불편하다. 순옥은 아버지가 기왕 죽는 거, 가치 있게 떠나는 게 낫다며 ‘피폭자 순교’의 의미로 동반 분신자살을 감행했다. 이는 독자에게 피폭자의 참상을 강조하고 비극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동반’ 형식의 분신자살을 설정한 인상을 준다.³⁶⁾

김옥숙의 『홍터의 꽃』은 세월호 이래 진실과 공감을 공유하고자 하는 여러 전 달자가 ‘어떻게 쓸 것인지’ 고심하던 때에 산출된 소설이기에 이 작품의 문학적 전략에는 세월호 담론이 영향을 미쳤다. 마찬가지로 이맹희의 자살기도의 영향을 받은 김원일의 『그곳에 이르는 먼 길』의 서사는 동반자살에까지 이른 셈이다. 그런 점에서 재난을 다룬 작품은 작가가 재난 피해자의 목소리 중 ‘무엇을 어떻게 들을 것’이며 억울한 피해자의 목소리를 공론화하기 위해 어떤 내용과 전략을 조직해야 하는지 고심하게 한다. 말했듯이 소설 한 편이 다양한 피해자

36) 작가는 3년여가 지나 ‘분신자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이 소설을 쓸 동안, 억누를 수 없는 분노로 필을 멈추곤 했다. 소설을 착수했을 때 주인공을 분신이란 극한까지 몰고 갈 의도는 없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써어지고 말았다. 객관성과 냉철함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지 않았느냐란 반성도 들었으나 그들을 살려내어 그 어떤 희망을 주어야 한다는 가능성과는 타협할 수 없었다. 현실의 그 어느 구석에도 그럴만한 구원의 빛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김원일, 1995 『그곳에 이르는 먼 길』, 장락, 318면.

의 모든 염원을 온전히 반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회에서 소외된 피폭자에 주목하고 ‘기다림’, 원폭유전, 분신자살 등을 통해 원폭의 사회화에 일조한 김원일의 문학적 시도는 충분히 문학사적으로 기억될 가치가 있다.

주제어 : 핵무기, 피폭, 합천, 전후 배상, 원폭문학

투고일(2021. 6. 10), 심사시작일(2021. 7. 8), 심사완료일(2021. 7. 20)

〈Abstract〉

Testimony of Korean Atomic Bomb Victims in 1992 and
Self-destruction and Socialization of Atomic Bomb
- Kim Won-il's *The Long Way to the Place* -

Lee Haeng Seon *

This article is intended to examine Kim Won-il's novel *The Long Way to the Place* (1992.6), which deals with the victims of the Korean atomic bomb. Kim Won-il, who witnessed the reality that the nuclear issue is being discussed in connection with the survival of the entire nation, found “the present state of division” in the atomic bomb victim. When President Roh Tae-woo visited to Japan in May 1990, the Japanese government promised 4 billion yen in the name of medical aid to Korean atomic bomb victims. The support was an event that greatly improved the conditions of the exposed Koreans despite the limitations that it was not an official apology and not a title of recompense. Then, what kind of atomic bomb issue did Kim Won-il want to raise against the backdrop of the time after such an agreement was reached and the first installment was deposited? In this context, the article wanted to reveal what Kim Won-il organized *The Long Way to the Place* with what and strategies to socialize and remember the atomic bomb issue.

Key Words : Nuclear Weapons, Radiation Exposure, Hapcheon, Postwar Recompense,
Atomic bomb Literature

* Assistant Professor of Kookmin University, Liberal Arts College.